

# 처음부터 끝까지 극적이었던, '미라클 두산'의 반전 우승

시즌 막판 9경기 뒤집고 정규시즌 제패, KS도 매 경기 드라마

지난해 KS 우승실패 털어낸 완벽부활...주축선수 반전활약 '깜짝'

두산 베어스의 통산 6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그 과정이 매우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드라마틱한 역전극, 핵심선수들의 반전 활약 등으로 값진 스토리를 완성했다.

두산이 지난 2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한국시리즈 4차전을 11-9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4-0으로 통산 6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 구단 역대 3번째이자 지난 2016년 이후 3년만에 통합우승이다.

시리즈 전적은 일방적이었지만 내용까지 쉽지는 않았다. 두산은 1차전 앞치락뒤치락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9회말 터진 오재일의 끝내기 안타로 간신히 승리했으며 2차전도 3-5로 밀리다 9회말 집중타가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다. 3차전을 5-0 완승을 장식한 두

산은 4차전에서도 초반 5점차로 밀렸으나 이를 단숨에 역전시키더니 연장 10회 승부 끝에 극적인 승리를 쟁겼다.

정규시즌 우승은 보다 극적이었다. 지난 8월15일 당시 1위 SK와 이번시즌에 9경기차로 뒤지며 우승 전망이 불투명했으나 시즌 막판 연전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시즌 종료전 승차를 없애는 데까지 성공했다.

마지막 정규시즌 우승 장면은 더욱 드라마틱했다. 10월1일 NC 다이노스와 최종전 승패에 따라 정규시즌 우승이 확정되는 알곳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초중반 계속 끌려다니던 두산은 9회말 반격의 집중타가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고 박세혁의 끝내기 중전안타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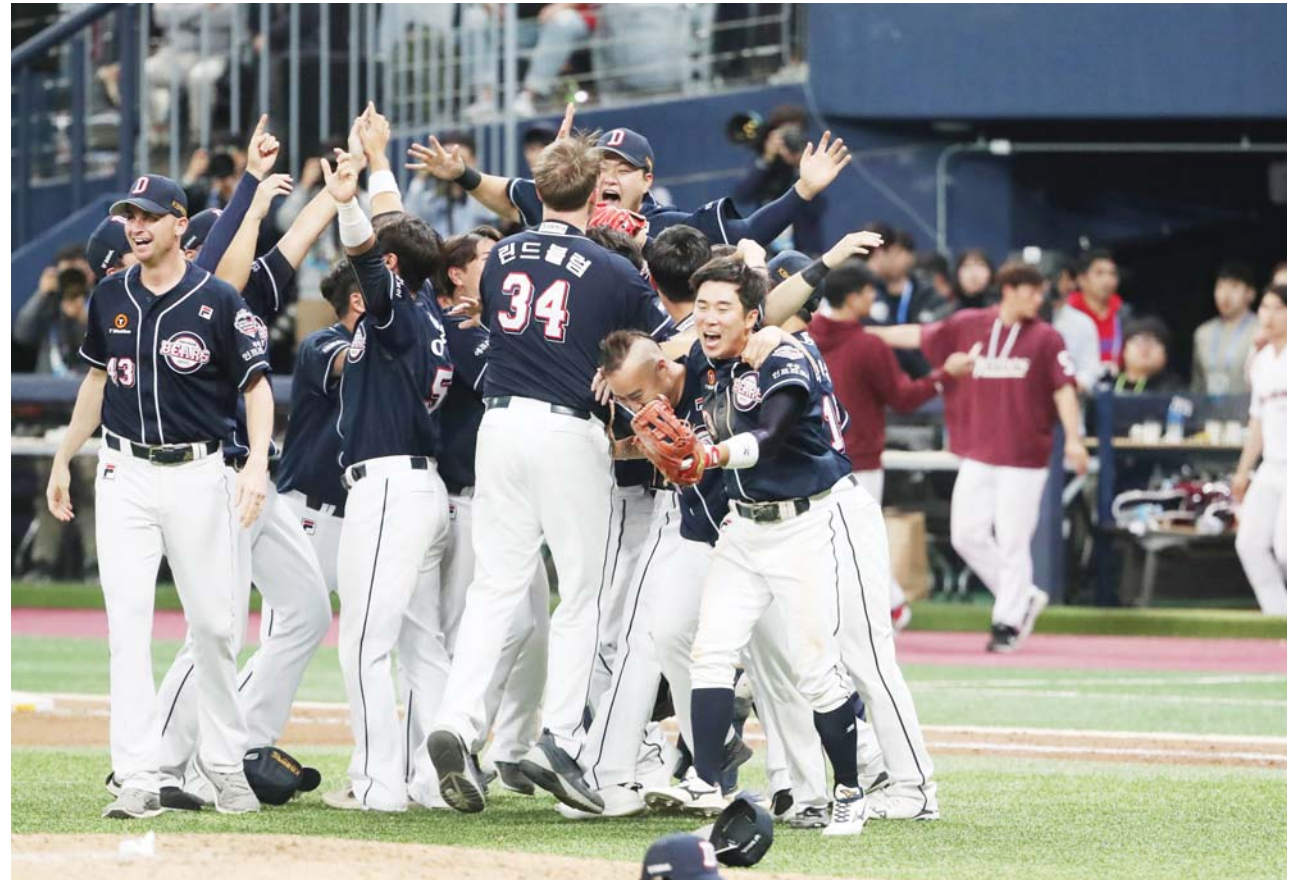
지난해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하고도 2위 SK의 벽에 막혀 한국시

리즈 우승에 실패했던 두산은 올 시즌 내내 작지 않은 후유증을 견뎌야 했다. 김태형 감독은 물론 주축선수들 대부분이 비판에 직면했고 고스란히 부담감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 기대를 밑돈 성적도 가라앉은 분위기의 영향이 꽤 있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틴 두산은 시즌 막판 강팀으로서 저력을 증명하며 정규시즌 그리고 한국시리즈까지 우승에 성공. 팀 수석어인 '미라클 두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증명했다.

해마다 팀 주축선수가 FA로 팀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팀은 단단해졌고 새로운 대체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의지 공백을 완벽히 메운 새로운 안방마님 박세혁의 존재감, 가을사나이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거포 오재일, 정규시즌



두산이 프로 원년 1982년을 시작으로 1995년, 2001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통산 6번째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1할대 부진에 허덕였지만 한국시리즈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팀 우

승을 이끈 캡틴 오재일 등 주축선수들의 반전활약이 빛나며 하나의

값진 스토리를 만들었다.

뉴스1

## 박혜정 · 이선미, 평양주니어아시아역도선수권서 나란히 금 3개씩 수확

압도적 기량 과시...박혜정, 세계신기록 작성도



박혜정(오른쪽) · 이선미가 아시아유소년 국제역도대회에서 각각 금메달 3개씩을 따냈다.

'제2의 장미란'이라 불리는 이선미(19·강원도청)와 박혜정(16·선부중)이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북한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유소년 국제 역도대회에서 금메달 3개씩을 목에 걸었다. 박혜정은 유소년 세계 신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이선미와 박혜정은 27일 평양 청춘기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주니어 여자 최중량급(87kg 이상)과 유소년 여자 최중량급(81kg 이상)에 각각 출전해 인상·용상 및 합계 세 부문을 모두 1위로 마쳐 금메달 3개씩을 따냈다.

박혜정은 유소년 연령대에서만 존재하는 '여자 81kg 이상급'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인상 110kg, 용상 145kg, 합계 255kg 모두 유소년 세계 신기록이다.

박혜정은 이미 국내 대회에서 기존 유소년 세계 기록(인상 107kg, 용상 130kg, 합계 237kg)을 뛰어 넘는 인상 111kg, 용상 150kg, 합계 259kg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다만 국내 대회에서 세운 기록이라 세계 기록으로 공인받지는 못했다. 이번에 박혜정은 2020 도쿄올림픽 참가 자격 점수가 반

영되는 공인 국제 대회인 대회에서 연령대 정정급 실력을 재확인하며 세계 기록마저 자신의 몫으로 만들어냈다.

이선미 역시 같은 체급에 출전한 선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손쉽게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인상에서 유소년·주니어 최중량급에 동시 출전한 산시즈바예바의 기록보다 8kg 많은 117kg을 1차 시기에 성공하더니 2·3차도 가볍게 성공해 인상을 127kg으로 마쳤다. 자신이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에서 수립한 한국 주니어 기록과 같았다.

용상에서도 1차에서만 143kg을 들어 일찌감치 1위를 확정했다. 2차에서 150kg을 든 이선미는 3차에서 한국 주니어 신기록(154kg)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실패했지만 합계(277kg) 1위는 변하지 않았다. 2위 산시즈바예바와의 합계 기록 차이는 36kg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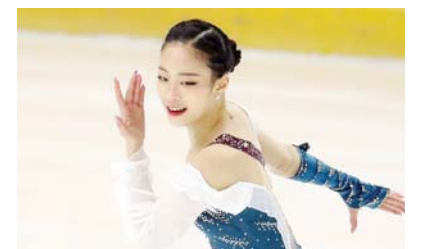
## 피겨 유명, 그랑프리 첫 출전에 동메달...한국인 역대 3번째 메달

유영(15·과천중)이 처음 출전한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영은 27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켈로나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2019 스케이트 캐나다 인터내셔널'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5.03점, 구성점수(PCS) 65.24점, 감점 1점 등으로 총점 139.27점을 받았다. 프리스케이팅 성적은 4위였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78.22점으로 2위에 올랐던 유영은 합계 217.49점으로 3위를 기록,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가 그랑프리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김연아, 임은수(16·신현고) 이후 유영이 3번째다.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넘어졌고 트리플 플립을 시도하다 주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 콤비네이션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유영은 프리 개인 최고 기록(141.25점)은 넘지 못했지만 쇼트 프로그램에서의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개인 최고점(총점 200.89점)을 갱신했다.

유영은 ISU 홈페이지를 통해 "트리플 악셀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이 좋았다. 처음으로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승은 241.02점을 기록한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트루소바가 차지했다. 일본의 키히라 리카는 230.33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화순군  
HWASUN-GUN

BUS TOUR

##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